

곡성 블루베리, 태국 수출...동남아 시장 진출 신호탄

100kg 규모 상차식...해외 판로 추가 확보 기대 브랜드 가치 인정...“지역농가 소득 향상 기여”

우수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곡성군의 블루베리가 태국 수출길에 올랐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2026년 곡성 블루베리 첫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곡성 블루베리의 올해 첫 해외 수출을 기념하고, 지역 농산물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곡성농협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관계자, 지역 농업인, 행정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출 물량은 총 0.1t(1kg 기준 100박스) 규모로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자, 태국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블루베리는 곡성농협 APC에서 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태

국으로 운송될 계획이다. 이는 곡성 블루베리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알리는 첫걸음으로, 향후 수출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 블루베리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체계적인 재배 관리 속에서 생산돼 당도와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루베리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수출 품목 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첫 수출은 단순한 물량 출하를 넘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선별·포장·물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곡성군은 최근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2026년 곡성 블루베리 첫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판촉 활동을 강화해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로 수출 대상 지역을 넓

혀 나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블루베리는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다”며 “이번 첫 수출을 계기로 해외시장에

서 곡성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순천,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희망디딤돌 통장’ 가동

내달 8일까지 157명 모집...자산 형성 기대

순천시가 5월 8일까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순천시가 10만원을 36개월간 매칭 적립해,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참여 청년은 만기 시 본인 적립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아 구직, 창업, 결혼자금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이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근로경력이 있는 근로자이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

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157명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자격 검토를 거쳐 7월 중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최

종 선정된 청년은 올해 7월부터 36개월간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749-3226)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과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수 기자 2556pk@gwangnam.co.kr

보성, 다향대축제 대비 생활환경숲 조성

주차장~행사장 이동 동선 ‘숲길화’ 등 보행환경 개선

보성군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를 앞두고 북재 주차장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 생활환경숲과 복합경관숲 조성해 행사장 동선 개선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축제 기간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요 이동 구간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의 동선을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로 전환하고자 추진됐다.

북재 주차장 ‘생활환경숲’은 기존 햇볕 노출 이동 동선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차장 외곽에 겹벚나무, 자작나무, 연산홍 등 개화 수종을 집중 식재해 계절감 있는 꽃길 숲을 조성하고, 그들이 확보된 보행로를 구축했다.

해당 구간은 축제 이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숲속 맨발길’로도 운영될 예

정이다.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는 ‘복합경관숲’이 조성된다. 품평관과 북투 사이 계곡 구간에는 목교 2개소를 설치하고, 팔꽃나무·공조팝나무·사계절미·황금실화백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경관을 강화했다.

북투에서 잔디광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겹벚나무와 차나무, 연산홍 등을 활용한 꽃길터널숲과 포토존을 조성해 방문객 체험 요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축제 기간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차문화공원, 보성차정원 등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며 “축제 이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우주항공·스마트 농수축산 산업 전문가 육성

고흥, 6월 5일까지 접수...장학생 2명 선발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인재 해외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흥군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 드론, 스마트 농수축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향후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드론, 스마트 농수축산 분야의 해외 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 예정인 학생이며, 분야별 1명씩 총 2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3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4학기)으로

1인당 총 6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 규모로 평가된다.

군은 단순히 학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학을 마친 인재들이 고흥군의 전략산업 현장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 혁신 벨리를 통한 첨단 농업 확산 등 고흥군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지원 신청서는 오는 6월 5일까지 고흥군청 여성가족과에서 접수하며, 지원 자격 및 상세한 신청 방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

장흥, 물축제·관광자원 홍보 본격화

내달 15일 탐진강변서 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

장흥군은 KBS ‘전국노래자랑’ 장흥군편을 개최하고 지역 홍보와 장흥 물축제 분위기를 확산에 나선다.

군은 5월 13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예심을 진행하고 5월 15일 오후 2시 탐진강변에서 본선 녹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은 6월 14일 KBS 1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이번 행사는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홍보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 장흥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원하는 군민은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3일 예심을 거쳐 최종 15~16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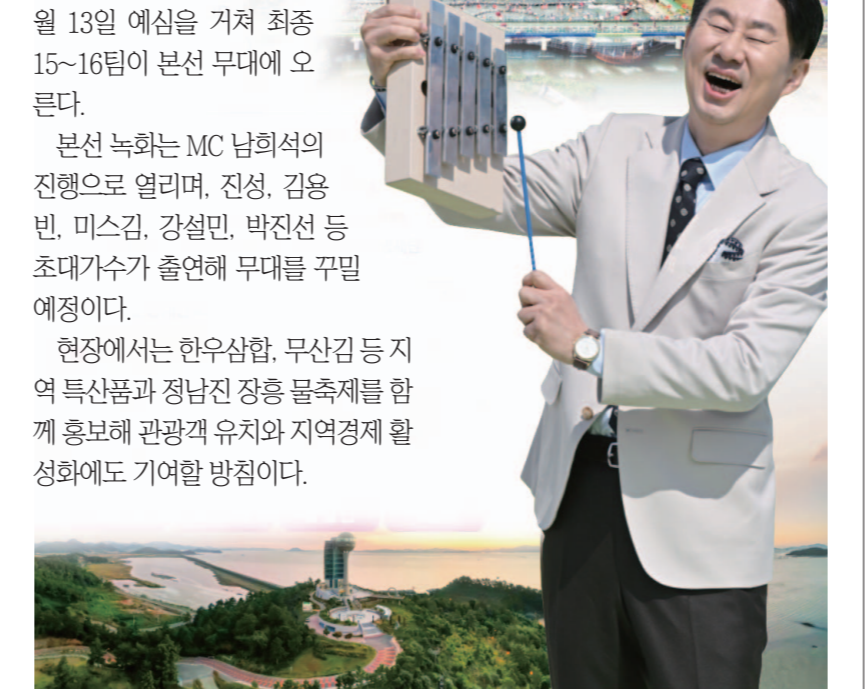
본선 녹화는 MC 남희석의 진행으로 열리며, 진성, 김용빈, 미스김, 강설민, 박진선 등 초대가수가 출연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한우삼합, 무산김 등 지역 특산품과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함께 홍보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흥군 문화관광실, 장흥축제관광재단 방문 또는 이메일(jhctf@jhct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전국노래자랑은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방송을 통해 장흥의 매력과 물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보성군은 축제장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쁜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여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성과 공유

UN 기후 고위급 챔피언에 RFID 종량기 등 소개

여수시는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1차 당사국총회(COP31) 기후 고위급 챔피언 사메드 아기르바시(Samed Agirbas) 일행이 시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시설을 견학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대응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정책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 왔다.

특히 공동주택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량을 월평균 37%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사메드 아기르바시 기후 고위급 챔피언은 “여수시의 데이터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 모델로서 인상적이다”며 “이번 견학이 튀르키예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도 큰 영감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COP33 유치를 추진 중인 도시로서 세계 기후 리더들에게 여수의 우수한 환경 정책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글로벌 기후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어린이 웃음꽃 활짝’ 광양, 어린이날 행사

내달 1일 광양시민광장

광양시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 광양시청 앞 광양시민광장 일원에서 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2026년 광양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3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족 참여형 행사다.

행사는 어린이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공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이후 마당극과 다제인 별문쇼 등 공연이 이어진다.

아동참여위원회와 청소년 동아리가 행사 부스 운영에 참여해 아동권리 홍보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생활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사장 전역에서는 키캡 꾸미기, 아이싱 쿠키 만들기, 가족 캐리커처 그리기, 에어바운스 등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